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오동나무+줄=소리

조주 스님이 신참학승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학승이 말했다. “설봉(雪峰)에서 왔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설봉은 어떤 말로 수행자에게 보 이는가?”
 학승이 말했다. “화상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전 우주는 사문(沙門·我)의 일척안(一隻眼)이다 자네들은 어디에 똥을 누는가?’ 라고.”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가 만일 돌아가거든 괜히 한 자루를 가져다주게.”

師問新到 離什麼處 云離雪峰 師云 雪峰有什麼言句示人 云和尚尋常道 盡十方世界 是沙門一隻眼 你等諸人向什麼處 師云 聞黎若遍 寄箇鐵子去

괘이를 보낸 뜻은 ‘똥 치우는 자’라는 뜻이다. 나 또한 조주 스님에게 돌아가는 자가 있으면 빗자루 한 개를 보내겠다.

조주 스님이 웃을 대중에게 순서대로 나누어주었을 때 한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 그렇게 모두 나누어주시면 무엇으로 쓰시겠습니까?”
 스님이 “호주자(湖州子)야” 하고 불렀다.
 학승이 “네”하고 대답하고 스님이 말했다. “무엇으로 쓰는가?”

師因捨衣依大眾次 僧便問 和尚總捨卻了 用箇什麼去 師召云 湖州子 僧應諾 師云 用箇什麼

기막힌 가르침, 다시 무엇을 더 보낼 것인가. 사람마다 재보를 두는 창고가 있는데 들여다보면 텅 비었으나 써도 써도 끝이 없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보였다.
 “아직 세계가 없을 때 이미 이 물건이 있었다. 세계가 괴멸될 때도 이 물건은 괴멸되지 않는다.”
 학승이 물었다. “이 물건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5온(五蘊)과 4대(四大)이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 또한 괴멸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4대와 5온이다.”

師示衆云 未有世界早有此性 世界壞時此性不壞 僧問 如何是此性 師云 五蘊四大 云此猶是壞 如何是此性 師云 四大五蘊

5온은 마음이고 4대는 육체이다. 줄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구멍 뚫린 오동나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동나무 통에 줄을 가지런히 매놓고 튕기면 소리가 난다. 원래 소리는 있었다. 오동나무와 줄이 만나 그 소리가 났을 뿐이다. 그러면 그 소리는 무엇인가? 오동나무와 줄이다. 혹은 줄과 오동나무이다. 이것이 없으면 소리가 없다.

정주(定州)에 어떤 좌주(座主:강사)가 있었는데 조주 선원으로 찾아왔다. 조주 스님이 물었다. “어떤 학업을 참구하고 계시는지?”

좌주가 말했다. “경율론 삼장에 대한 것이라면 남에게 듣지 않더라도 곧 강의할 수 있습니다.”
 조주 스님은 손을 들어 올려 보이고 물었다. “이것을 강의할 수 있습니까?”
 좌주는 망연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령 당신이 남에게 듣지 않고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해도 하나의 경(經)이나 논(論)을 강의(講義)하는 사람 밖에 안돼요. 그렇게 해서 불법에 들어가지 못해요.”
 좌주가 말했다. “지금 화상의 말씀이 곧 불법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령 당신이 물을 수도 있고 대답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경이나 논에 속하는 것이요. 불법에 있는 것이 아니요.”
 좌주는 말이 없었다.

定州有一座主到 師問 習何業 云經律論不聽便講 師舉手示之 還講得者箇麼 座主茫然不知 師云 直饒你不聽便講得也 只是箇講經論漢 若是佛法未 在 云和尚即今語話 莫便是佛法否 師云 直饒你問得答得 總屬經論 佛法未 在主無語

불법은 경과 논 속에 없다. 그 속에 있다면 조주 선사께서 손을 들은 뜻을 알았을 것이다. 좌주는 경론 속에 들어갔을 뿐 불법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42)

번뇌-⑥ 수번뇌(隨煩惱)

번뇌에는 탐(貪)·진(瞋)·치(癡)·만(慢)·의(疑)·악견(惡見)의 여섯 가지 근본번뇌와 그 근본번뇌를 따라 일어나는 수번뇌(隨煩惱)가 있다. 수번뇌의 번뇌를 흑(惑)자로 대체해 수흑(隨惑)이라고도 하고 근본번뇌에 종속된 부수적인 번뇌라는 의미로 지말흑(枝末惑) 또는 지말번뇌(枝末煩惱)라고도 한다. 한편으로는 근본번뇌를 세분화한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일컫기도 한다. 이러한 수번뇌는 초기 불교에 이어 불교를 교학적으로 연구한 시대인 아비달마 시대에 이르러 대번뇌지법(大煩惱地法) 다섯 가지와 대불선지법(大不善地法) 두 가지 그리고 소번뇌지법(小煩惱地法) 열 가지와 부정지법(不定地法) 두 가지의 열아홉 가지로 나뉘었다가 아비달마의 교학불교를 철학적으로 해석한 학파의 하나인 유식불교에 이르러 다시 스무 가지로 재분류된다. 유식학파는 이 스무 가지의 수번뇌를 번뇌의 정도에 따라 크게 대수번뇌(大隨煩惱)와 중수번뇌(中隨煩惱) 그리고 소수번뇌(小隨煩惱)로 구분했다. 이중에 대수번뇌는 청정하지 않고 더러워진 마음 중에 선하지 않은 마음[不善]과 업에 의해 나쁘게 물들어 있는 마음[有覆] 이 항상 있는 번뇌를 말한다. 중수번뇌는 올라가지도 청정하지도 않으며 진리를

따르지 않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을 말하고 소수번뇌는 항상 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 일어나는 번뇌를 말한다. 대수번뇌에는 방일(放逸)·해태(懈怠)·불신(不信)·혼침(昏沈)·도거(掉舉)·실념(失念)·산란(散亂)·부정지(不正知)의 여덟 가지가 있다. 이 중에 방일은 제멋대로의 마음으로 계율이나 바른 질서를 지키지 않고 방종한 것을 말한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는 선근(善根)을 닦지 않아 더러움을 막지 못하고 청정함을 지키지 못한다. 해태(懈怠)는 정진(精進)의 반대말로 일종의 게으름을 말한다. 악(惡)은 막고 선(善)은 행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열심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게으름은 무상을 자각함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불신(不信)은 진리에 대해 믿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여 불·법·승 삼보(三寶)를 하찮게 여기고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신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진리를 듣고 사유하고 수행함에 따라 점점 더 확고해 질 수 있다. 혼침(昏沈)은 마음이 가라앉아 우울한 상태를 말한다. 어둡고 침울한 이 상태는 대상을 명확하게 변별하지 못한다.

예컨대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방안에 무엇이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밝고 평온한 마음으로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도거(掉舉)는 혼침과 반대로 마음이 들떠서 침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고요하고 평온하지 못한 이 상태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선정에 장애가 된다. 우울증과 같은 혼침과 더불어 조증과 같은 도거는 모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실념(失念)은 바른 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바른 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다기 보다는 주의집중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팔정도의 정념(正念)과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다. 산란(散亂)은 대상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말한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여 어지럽기 때문에 깊은 정진통일의 수행을 의미하는 팔정도의 정정(正定)을 닦는데 방해가 된다. 부정지(不正知)는 중도에 기반 해 사상제를 바로 아는 바른 견해와 반대되는 의미로 대상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身口意三業)가 바르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해 파생된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日 龍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여섯가지 근본 번뇌에 종속된 ‘번뇌’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⑦

나는 왕위같은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다 나는 1만세계를 울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인연이야기(니다나 카타)〉

끝없이 갈라지는 앞길. 한길(一路)은 얼마나 될까? 한길이다 싶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갈림길(岐路). 우린 늘 이 갈라지는 길 앞에서 방황한다. 동시에 그 두 길을 다 가고 싶지만, 그것은 욕심이다. 그럴 수 없다.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분은 언제나 선택 앞에서 당당했다. 인정사정 볼 것도 없었다. 언제나 한결 같이, 일호(一毫)의 머뭇거림도 없다. 단 칼에 베고 만다. 가히 선적(禪的) 기백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본다면, 1만 세계를 울리는 부처보다도 왕위를 선택할 사람이 적지 않을 터인데... 그분은 일도양단(一刀兩斷), 부처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나 왕의 길(rāja-dharma)과 부처의 길, 즉 해탈의 길(mokṣa-dharma)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바로 바라문교 전통이었다. 바라문교(뫼탈의 힌두교)에서는 이 두 길을 다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왕으로 태어났다면(즉 크샤트리아 계급이라면) 당연히 먼저 왕으로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일을 다한 뒤에, 말년에 은퇴하여서 해탈을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예

우리가 늘 갈림길을 앞에 두고 멈추어 서듯이, 그분 역시 언제나 왕의 길과 부처의 길을 앞에 두고서 멈추어 섰다. 아니, ‘법취, 그리고 선택해’라는 말을 듣는다. 이 두 길은 늘 함께 따라다녔다.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세속에 있으면 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부처가 될 것이다” 했다. 8만명의 친척들이 모여서 하는 말 역시 그랬다. “그 분이 부처가 되시거나 혹은 왕이 되시거나 우리들 아이 한 명씩을 바치기로 하자.”(이미령 옮김, <붓다의 과거세 이야기>, 민족사, p.125쪽).



그림 · 박구원

열반에 즈음해서, 부처님께서도 친히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예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언제나 부처와 전륜성왕은 함께 이야기됐다. 지금도 그렇다. 선택지는 둘이다. 하나는 왕의 길, 그것도 이상적인 왕으로 추앙받는 전륜성왕이 되는 길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상황이다. 막, 출가하려는 순간이다. 누군가 그를 막아선다.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이다. “젊은이여! 나가서는 안 되요. 그대에 게는 지금부터 7일째 되는 날에 윤보(輪寶)가 나타날 것이요. 그리되면 그대는 2천 군도에 둘러싸인 4대륙의 왕이 될 것이요. 젊은이여! 돌아가시오.” 윤보는 전륜성왕이 지니고 있어야 할 무기이다. 그러니까 곧 전륜성왕이 될 터이니, 출가를 단념하고 돌아가라는 말이든. 그 어르신은 도대체 누구래, 감히 이런 말을 하고 나서서 것일까? “악마 중에서도 가장 힘있는 자 마왕(魔王)이

법전이 있다. 그러니까 왕의 길을 가면서 왕의 의무를 다하는 기간이 거주기(家住期, gṛhastha)인 것이다. 거주기의 의무를 다하고 난 뒤에 숲속으로 들어가서 해탈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주기를 건너뛴 것이 바라문교의 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출가는, 바로 그렇게 왕의 길을 가야 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거주기를 건너뛰었음을 알 수 있다. 출가, 그것은 집(house)이나 가정(home)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주기를 건너 뛰는 것을 말한다. 아니,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회체제를 거부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불교의 출가는 반체제(反體制)였으며, 스님들은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로부터, 중국에서는 유교로부터 불교가 억압을 받게 된 까닭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불자님들 스스로, 가정에서 건강 지키기 위한 전통 뜬, 침술, 한약 대특강

「동양의학방송국」이사장인 덕운스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한 일환으로 불자님들에게 건강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동양의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19일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동양의학방송국 대강당(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2층)

□ 강의일정

- ▶ 오후 2시 ~ 4시 : 한방약초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한약차 및 한약재 강의)
- ▶ 오후 4시 ~ 6시 : 불가에서 내려오는 응급 상용 침술법 (중풍, 두통, 체기, 위장장애 등등)

□ 접수인원 : 선착순 20명(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회 비 : 각 과목당 월 15만원(불교인 30%할인)

□ 문 의 : 02)3487-2311

강 사 약 력

- 덕운 스님 법계 : 대덕 / 중공 한의사
- 박정아 한약사 한의학 석사, 의과학 박사 / (사)대한한약사회 여한약사회장 / 저서 한방차 다이어트

불교전문강원 학인 모집

각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불교강원을 개설합니다.

경전과목	◆ 사지반 ◆ 초발심자경문 (원효스님 발심장 부문) ◆ 치문, 도서, 선요 ※ 특강 : 선문 활요, 금강경
대 상	각종 종교단체 스님 또는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으로 성별에 제한없이 누구나 수강 가능
강 사	도열스님 (통도사 강원, 월정사 강원, 마곡사 강원, 강주 역임, 범어사 중강 역임)
불교의식	예불, 대령관목, 관음시식, 다비식 등
강의시간	매주 화, 목, 일,에 강의

※ 스님이 되셨으나 한문으로 된 불교경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스님들을 위하여 종단을 초월한 교육원으로써 수요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 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금청산 금륜사 불교전문 강원
문의 055)383-5830, 055)383-7009 / 011-556-5830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36-1번지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1단계예견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2단계예견

- 종합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3단계예견

- 자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물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가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물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 (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종교)위원
사)한국산업가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상재 이수자

한국 설법 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